

한·미, 한·중 FTA에 대비, 자생력 키워나가야 할 때

본지 · 김한웅 상무

한·미 FTA의 발효에 이어 한·중 FTA가 또다시 준비되고 있다.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형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닭고기 업계로서는 썩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중국은 닭고기 수입국이면서도 닭고기를 수출하는 국가이다.

자국 내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육류소비량이 급증해 수입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닭고기 생산량 45만5천톤과 같은 수준인 42만3천톤을 수출하는 국가이다.

한국으로는 검역문제 등으로 생육은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꼬치 등 가공육 위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산 닭고기의 주요 수입국은 일본(52%), 홍콩(31.2%)이지만 우리나라도 2.5% 정도(가공품)를 수입하고 있다.

만에 하나 검역문제가 해결된다면 한국도 중국산 닭고기의 세상이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의 육계 사육수수는 약 75억수 정도로 우리나라의 10배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FTA가 타결돼 관세가 없어지고 검역문제가 해결된다면 중국의 수출 가시권 안에서 항상 긴장하고 주시해야 할 시장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수출주력 품목이 닭다리 등 냉동 부분육에 집중돼 있지만 중국은 통닭형태로의 수입도 감안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래저래 한국의 닭고기 산업은 FTA로 인해 더욱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할 것이 예상된다.

미국의 닭고기 시장은 2006년 이후 생산량이 소비량을 앞지르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닭고기 1인당 소비량은 2006년 38kg을 기록한 이후로는 줄곧 소비가 감소하거나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옥수수가격의 상승으로 닭고기 생산원가가 높아져 닭고기 가격이 빠르게 인상된 것도 원인이지만 전체적인 육류소비의 감소와 금융위기 등 경제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미국은 2010년을 기준으로 세계 닭고기 생산량의 21%를 차지, 중국 16%, 브라질 15.7%와 함께 세계 닭고기 생산의 53%를 담당하고 있다.

이중 수출 시장 점유율은 약 34% 정도로 브라질의 36%에 뒤처지고 있다.

생산량이 소비량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닭고기 산업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은 수출물량의 증가이다.

2011년도 닭고기 수입량 10만8천톤 중 8만1천톤이 미국에서 수입됐다.

특히 전년도는 닭고기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할당관세로 적용받아 무관세로 5만톤의 닭고기가 수입된 것을 포함하여 이중 대다수가 미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최근 3년간의 닭고기 수입실적을 보더라도 미국산 닭고기의 수입이 70%에 육박하고 있다.

미국의 닭고기 산업이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이상, 그 칼날을 피해 나갈 수는 없는 실정이다.

“

미국의 닭고기 산업이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이상, 그 칼날을 피해 나갈 수는 없는 실정이다.

한·미 FTA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육규모를 확대해 생산비를 절감시켜야 한다.

”

결국 우리 스스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내 닭고기 시장 사수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미 FTA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육규모를 확대해 생산비를 절감시켜야 한다.

아울러 국내산 닭고기의 안전성, 우수성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우리의 닭고기에 비해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중국산 닭고기, 폐기 처리하는 수준의 미국산 닭고기(닭다리)에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